

설 선물세트, 소포장 실속 상품이 대세

광주지역 유통업계 '명절특수 집기' 차별화 경쟁

경기 불황 여파로 명절특수가 잠잠한 가운데 광주 지역 유통업체들이 설 선물세트에 소비자가 지갑 열기에 나섰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중저가 선물세트는 물론 1~2인 가족을 위한 소포장 제품, 다양한 제철식품, 고급스러운 와인세트 등 차별화를 시도해 매출 부진을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3일 광주신세계 등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대규모 '설 선물세트 특집전'에 돌입하는 등 명절 특수를 집기위한 판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설 대목의 매출을 선점하기 위해 각 장르에서 차별화된 선물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자체 고객분석을 통해 올해 설 선물 수요를 다양성·간편성·실속·합리 등 4가지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설 특수를 노렸다.

주요 선물세트 품목은 ▲거제 외포 건대구 세트(20만원) ▲드라이에이지 한우 스테이크(50만원) ▲무항생제 암소 한우 특호(40만원)·1호(30만원) ▲목장한우 세트 특호(47만원)·1호(38만원) ▲구가네 참 편한 굴비 세트(12만원) ▲효도갈치 세트(22만원) ▲수펄 알찬 굴비(12만5000원) ▲알찬 사과 배 세트(7만5000원) 등이다. 이 밖에 최근 명절 인기 선물로 뜨고 있는 와인도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18일까지 '2015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명절기간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고가의 상품보다는 중저가의 부담 없는 가격대의 상품들을 대폭 늘렸으며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실속형 상품들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사전예약 판매에서 실적이 좋았던 ▲참치·식용유 세트(3만7000원) ▲스팸(3만5800원) ▲차세트(4만2000원) 등 3만~5만원대 실속 가공식품을 전년 대비 약 20% 이상 물량을 확대하여 선보일 예정이며, 지난해 과수 피해가 적고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상품 저장량이 많아 가격이 내려간 사과·배 환패세트 외에도 한라봉, 멜론 등 다양한 구성의 과일세트도 준

광주신세계 이색 상품 대거 선보

롯데백화점 중저가 제품 위주 이마트 PL제품 선물세트 꾸러

비했다. 또 전남 대표 한우 브랜드인 '녹색한우'에서 설날을 맞아 다양한 가격대의 한우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녹색한우 알뜰 1호세트 18만원, 한우 알뜰세트 17만8000원 등인 정육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 등급 암소의 인기 부위와 특수 부위로 엄선된 프리미엄 특선 암소한우 세트, 자연산 전복세트(3kg 이상), 프리미엄 과일 5종세트 등 프리미엄급 제품도 특별 주문제작해 판매한다. '가장 희귀한 부르고뉴 와인'이라 불리는 조르주 루미에 워진니 그랑크뤼 등 고품격 와인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 역시 이번 설 선물 특판기간에 유통업체 자체상품인 PL 제품으로 선물세트를 꾸렸다.

명절 선물로 처음 선보이는 '피코크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는 제주산 참기름250ml 1병과 국산 들기름 250ml 2병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4만3800원 선이다. 기존 홍삼장에 프리미엄 유산균, 유기농 건강즙 등을 추가한 프리미엄 건강식품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유산균 선물세트 등도 PL 제품으로 출시해 선물세트 구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피코크 원두커피', '유기농 건강즙 3종'과 한정판 특별 와인인 '로스바스코스 퀴베20·가베르네 소비뇽'도 실속 설 선물세트로 내놓았다.

지역 백화점 한 관계자는 "올 설에는 실속형 상품과 이색적인 선물을 확대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가격대와 차별화된 상품 구성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선물특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마트 모델들이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구성된 프리미엄급 PL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설을 앞두고 전국 점포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만으로 구성된 프리미엄급 PL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마트 제공>

특산물 30%까지 할인...우체국쇼핑 설맞이 대잔치



전남지방우정청(청장 문성계)은 설날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우체국쇼핑 설맞이 할인 대잔치'를 열고, 7196개 지역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설 인기상품인 사과, 배, 귤, 멸치 등의 실속있는 선물과 고급상품인 한우, 굴비, 전복, 육포 등 신선식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체국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모바일 앱 '우체국쇼핑'을 다운로드 받아 쇼핑할 경우 모바일에서만 제공되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정청 관계자는 "이번 설 동안 우편물은 평소의 1.5배인 약 1561만 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했다"며 "1300여명 인력과 2100여 대 차량을 추가 투입하여 설 우편물 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국가별 비중 미국 87% 독보적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 대상 국가나 제품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직구족들은 주로 미국에서 패션·의류, 독일에서 주방용품·생활가전, 중국에서 소형 전자제품, 일본에는 미용용품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내 최대 해외배송 대행업체 '몰테일'(post.malltail.com)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 배송대행 건수 국가별 비중은 ▲미국 87% ▲중국 5.2% ▲일본 4.6% ▲독일 3.2% 등으로 집계됐다.

몰테일은 직구족을 대신해 해외에서 직구족의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체로, 국내 직구 물량의 절반 정도를 취급한다.

美 의류·獨 주방용품·日 미용제품·中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목 국가별로 특화

미국 직구 비율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지만, 2013년(92%)과 비교하면 5%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대신 독일·중국·일본 비율이 각각 2.2%포인트, 1.5%포인트, 0.8%포인트 높아졌다.

나라별 인기 직구 제품 순위(구매량 기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겔 로고 맨투맨티(아웃·크룩스 아드리나 핏플립(신발)·레베카 밍코프 미니맥(가방)·나인웨스트 부츠(신발) 등 패션·잡화 제품이 1~4위에 올랐다.

이들 제품의 국내 가격은 5만~30만원대에

이르지만, 직구 가격(배송료·관세 미포함)은 절반 이하인 2만~10만원대에 불과하다.

최근 비중이 크게 늘어난 독일 직구에서는 주방용품·생활가전 등이 인기다. 네스프레소 웰컴팩(커피 캡슐)·알피구스토 보온주전자·지멘스 전기레인지·휘슬러 비터넷 프리미엄 압력솥 세트·하바 목재블록 놀이세트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구족들이 중국 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 주로 담은 품목은 침구류와 소형 전자제품이다.

샤오미(스마트폰) 보조배터리(10400mA)·구스다운 침구 세트·SJCAM SJ4000 스포츠액션캠·큐브 아이워크 태블릿PC(Cube iwork7 WIFI 16GB) 등의 수요가 많다.

일본 직구 1위 품목은 프리미엄 헤어 미용 제품인 '무코타 프리미엄스 카로레'다. 아마존 일본, 온라인 오픈마켓 '리쿠텐' 등을 통해 국내 고급 미용실 등에서 사용되는 일제 미용 제품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구매 쓰는 것이다.

미용실에서 이 제품을 한 번 시술 받으려면 10만원 이상 쥘아하는데 비해, 직구로 4만원(배송료·관세 미포함) 정도로 구입하면 최소 30~50차례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아마하 MCR(미니오디오)·해피해킹 키보드 등 전자제품, 장난감·피규어 등 취미용품의 일본 직구도 인기다. <연합뉴스>



달콤한 감자칩 시장 살벌한 겨울 쟁탈전

제과업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태제과가 지난 8월 출시한 달콤한 감자칩 '히니버터칩'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농심이 최근 내놓은 '수미칩 히니 머스타드'가 매서운 속도로 추격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리온도 지난 8월 내놓은 '포카칩 스위트즈맛'으로 달콤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지난 17일 출시한 수미칩 히니머스타드는 지난 26일까지 열흘간 17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종전 수미칩의 한달 판매액인 20억원에 근접하는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단순하게 추산하면 51억원이 나 된다. 해태 히니버터칩의 매출이 월 70억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수미칩 히니머스타드는 출시와 동시에 턱 밑까지 추격한 셈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이미 히니버터칩을 제치고 히니머스타드가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라고 농심측은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4개월 내내 국내산 감자를 쓰는 등 재료가 뛰어난데다 히니머스타드는 뒷맛이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서 어른들도 좋아한다"며 "출시 초기 반응도 아주 좋았는데다 가격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태측은 농심 수미칩 히니머스타드의 인기를 "반짝 인기"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농심 수미칩 히니머스타드의 성격은 히니버터칩의 인기가 워낙 높아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힘든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반사효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해태 관계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이상 열풍이 가라앉으면 달콤한 감자칩 시장은 히니버터칩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 등에서 수미칩 히니머스타드에 대해 울린 글들이 별로 없더라"며 "그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미칩의 반응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산 감자는 대개 요즘이면 소진돼 미국산 수입감자를 쓰지만,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온도 달콤한 감자칩 열풍에 힘입어 '포카칩 스위트즈맛'의 매출이 월 15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겨울철에 감자칩 시장을 두고 업체간 격돌하는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겨울은 감자칩 비수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해태 히니버터칩이 열어놓은 달콤한 감자칩 시장이 감자칩 시장 자체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내지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안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문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6604
침월	673-1600
신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창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영광군	351-0055	곡성군	362-8111
함평군	324-8111	구례군	782-4696
신안군	278-8111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목포시	276-9200	화순군	374-4423
무안군	452-8535	순천시	746-8111
남원시	283-1540	광양시	792-8111
영암군	471-1717	보성군	852-8646(보성) 857-0686(별교)
장흥군	863-8822	여수시	692-0997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해남군	537-6767	원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